



인파 밀려든 제주, 방역고삐 ‘바짝’

지난 9일부터 한글날 연휴 사흘간 관광객 10만명 찾아도, 코로나19 잠복기 고려해 고강도 방역 유지하기로

추석 연휴에 이어 한글날 연휴기간에도 제주도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고강도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글날 연휴를 맞아 9~11일 사흘간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휴 이후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방역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9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4만29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도가 예상한 3만8000명보다 5000명 가량 많은 수치다. 또 10일 2만7305명을 포함하면 이틀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7만명에 달한다. 특히 11일에도 관광객 3만여명이 찾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한글날 연휴 제주 관광객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코로나19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1일까지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조치를 유지했다. 또한 한글날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1일까지 공·항만, 652개 관광사업체, 8대 핵심관광클러스터(제주국제공항 인근, 함덕해변, 성산일출봉-섬지코지 인근, 표선해변, 서귀포시 구시가지, 중문관광단지, 협재-금능해변, 곽지-한담해변)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오는 18일까지 특별방역 위험 관리기간으로 정해 고강도 사후방역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지난 8월 광복절 연휴 직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데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이어져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만큼 ‘조용한 전

파’ 가능성과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도는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A씨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일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다음날 오전 9시 입도했으며 27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이어갔다. 이후 A씨는 지난 8일 아들과 점심식사를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난 뒤 도 방역당국에 의해 발각됐다. 이에 도내 안심밴드 착용자는 총 4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도내 자가격리장소 이탈로 고발된 사례는 10건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 그리고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태훈기자

현장도착까지 ‘6분1초’ 여전히 느린 제주경찰

전국 112 출동시간 4분16초

제주 경찰의 112 신고 출동시간 지난 해보다 빨라진 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보단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112 신고 출동시간은 6분1초로 지난해 6분29초에서 28초 빨라졌다. 그러나 전국평균 4분16초에 비하면 1분40초 가량 늦었다.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112 출동시간이 6분대를 기록한 곳은 강원과 세종, 충남 뿐이었고 전국에서 출동

시간이 가장 빠른 곳은 인천으로 3분53초였다.

한병도 의원은 “112 출동 시간의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큰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별 치안 격차로 인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추가적인 인력 충원과 이에 따른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나홀로 제주행’ 초등생, 가족 품으로

언니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 연락두절 후 나홀로에 발견

광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홀로 제주에 온 초등학생이 나홀로 발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공항에서 혼자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온 뒤 연락이 끊겼던 A(13)양이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쯤 제주 시내에서 무사히 발견됐다. A양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제주에 와 있던 부모에게 인계됐다.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A양은 만 13세 이하로, 보호자 없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으나 광주공항에서 가족(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해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가 168cm로 또래보다 큰 편인데다 언니와 생김새도 비슷했기 때문에 수속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경찰서를 통해 미귀가 아동 신고 협조 요청을 받은 제주경찰은 공항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중심으로 A양의 동선을 추적해 왔다. 강대해기자

허위신고에 제주공항 소동

제주국제공항에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공항 내 대합실 등을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17분쯤 119문자서비스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부터 “제주공항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제주공항 경찰대 등 관계기관은 인력·장비를 동원해 폭발물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장난전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대해기자



“마스크 착용 지켜주세요” 지난 10일 절물자연휴양림에서 제주시와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 방문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안동우 제주시장도 이날 함께 마스크를 나눠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방역의 주체이자 책임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상 속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희민기자

“응어리진 한 풀듯... 하루빨리 재판 끝나길”

4·3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김두황씨 등 8명 청구 건에 제주법원 “다시 재판 열어야” 일반재판 수형인엔 첫 결정

판결문 없는 군사 재판 등 70년 전 진실규명 길 열려

제주4·3 당시 군사재판 또는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8명이 낸 재심 청구를 법원이 지난 8일 받아들였다. 군사재판을 받은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정은 2018년에 이어 두번째,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번째 재심 결정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201호 법정에서 장병식(90)씨, 김두황(93)씨, 故변연옥(91)씨, 故송석진(93)씨 등 4·3수형인 8명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8명 중 김두황씨는 일반

재판을, 장병식씨 등 나머지 7명은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1948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을 난산리의 자택에서 영문도 모른채 경찰에 체포돼 성산포경정서로 끌려갔다. 이후 변호사 없이 진행된 일반재판에서 내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에 투옥된 뒤 1950년 2월 출소했다. 당시 김씨의 판결문에는 1948년 9월 25일 난산리 소재 김두황씨의 집에서 주민 6명과 무허가 집회를 열고 폭동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김씨는 “날 조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장씨 등 나머지 7명은 1948-1949년 사이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재판을 받아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두황씨와 달리 군법회의에 회부된 이들에 대한 공판 조서, 판결문 등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재심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문 또는 허위 자백 등을 강요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어, 그동안 재판부는 ‘판결문 없는 군사재판’이 실제 이뤄졌는지, 고문 또는 불법 구금 등 부당한 공권력이 자행된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재판부는 “수형인 명부, 제주4·3 진상보고서 등을 살펴볼 때 당시 군사재판이 진행됐고 고문과 불법 연행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청구인들이 입지도 않은 피해를 허위로 진술할만한 사정도 없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재심 개시 결정 직후 김두황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72년 동안 응어리진 한을 풀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故송석진씨 아들 송창기(73)씨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때 재심 개시 결정이 났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며 “재심 청구 수형인 중 고령인분이 많으니 재판부가 하루 빨리 재심 재판을 끝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재심을 청구한 4·3수형인은 모두 362명으로 이 중 352명이 4·3 당시 군사재판을, 나머지 10명이 일반 재판을 받았다. 이상민기자

“추워진 날씨, 심·뇌혈관 질환 주의를”

최근 심정지 사망 등 발생

최근 차가워진 날씨로 제주에서 심·뇌혈관 질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시 오라동에서 50대 남성이 급성 심근경색 증세를 보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튿날인 7일 제주시

한림읍에서도 고혈압 만성질환을 갖고 있던 70대 여성이 심정지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이른 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금연·절주, 하루 30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며 혈압체크 및 정기적인 병원 검진이 필요하다. 강대해기자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3층 대 로 CGV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그랜드 보청기

추석한기임 1:1 대드림 행사!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때행 혜택입니다.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삼촌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기쁨을 겪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

430만 → 150만! 860만 → 270만!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 효과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감소
- 강력한 라임효과

코코리 입상

- 100% 수용성 비료
- 15-3-5+ 특수물질 8종
-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 PAA
- 바실러스
- 홍수당밀

필리산

-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 PGA
- 왕스바실러스
- 발근제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V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